

히치하이킹 남미(2)

■ 칠레 인심, 아르헨티나 인심

이 동 훈

멘도사에서 걸어 나오는 우리 앞에 남은 길은 아르헨티나 그 자체였다. 왜냐하면 멘도사는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가르는 안데스 산맥 아랫자락에 위치해 있었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대서양에 맞닿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이다.



칠레에서 아르헨티나로 가는 길목에서

멘도사에서 아르헨티나를 가로지르는 가장 빠른 길은 대평원(스페인어로 ‘팜파스’라고 한다) 한가운데 위치한 산루이스 시를 지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르는 길(7번 국도)이었지만 이 낭만적인 항구 도시를 만나기에 앞서 우리는 일단 산타페 주의 로사리오라는 도시에 들러야 했다. 그곳에는 ‘해방군’이라는 아르헨티나 한인계의 유명인사가 살고 있었다. 소연이와 화정, 내가 볼리비아를 무전여행하고 있을 때 지원 형과 걸희 형은 라파스의 한인 식당에서 ‘해방군’ 아저씨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여행을 좋아해서 지구를 열 바퀴 돌았으며 체 게바라를 존경해서 그의 생가가 있는 로사리오에 터전을 잡았다는 전설에 가까운 이야기.

언제나 배낭 여행자들을 따뜻이 맞이하는 분이니까 그분에게

신세를 지라고 식당 주인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직행하지 않고 일단 로사리오에 들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우리 팀이 소연, 화정, 걸희 형 팀을 다시 만나기로 한 곳도 ‘해방군’ 아저씨 덕이었다. 지원 형과 나는 멘도사에 도착한 날 오후, ‘해방군’ 아저씨 덕에 전화를 걸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삼일 뒤에 댁을 찾아가겠다고 말씀드려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아르헨티나를 눈앞에서 맞닥뜨린 오늘, 히치하이킹은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멘도사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이 고속도로와 합류하는 지점에서 일단 히치하이킹을 시작했으나 그곳에서 지나가던 자동차를 세워 검문하던 경찰들은(어떤 기준으로 무엇 때문에 검문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너희들이 거기 서있으면 차가 서는데 방해가 된다면서 우릴 내쫓았고, 자전거 동호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디서 카미온(트럭)을 쉽게 잡을 수 있는지 물어보거나 마트 앞의 도로변에 앉아 어디선가 산 과자를 무기력하게 집어먹기도 하면서 네 번이나 자리를 바꾸었지만 차는 도저히 잡힐 생각을 하지 않았다.

비로소 우리가 정착한 곳은 휴게소가 딸려있는 주유소였다. 하긴, 언제부턴가 히치하이킹은 모험이라기보다 ‘기술’이 되어서 우리는 언제나 카미온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주유소를 찾았다. 물론 거기서 우릴 태워줄 운전사를 만나야 아니냐는 운에 달려있긴 했지만 말이다. 우리는 휴게소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일단 여유를 부렸다. 그리고 주유소에 들어오는 카미온마다 말을 걸었다.

“우리는 한국에서 온 여행자인데 산루이스까지 가요, 태워주실래요?”

“거기까지 안 가요. 이 근처까지만 갑니다.”

처음에는 카미온뿐만 아니라 승용차에도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가까운 곳에 간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어서 나중에는 카미온만 기다렸다. 오늘처럼 담배를 많이 핀 날도 없었을 것이다. 히치하이킹이 안 될수록, 몸과 마음이 지쳐 무기력해질수록 담배는 우리 손에서 떠나질 않았다. 태워준다는 차는 나타나질 않고, 과자 따위로 돈만 축내면서 주저앉아 있었다.

주유소 직원들은 이곳에 산루이스 행 차들이 많이 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물어본 운전자들은 하나같이 가까운 곳까지만 간다고 대답했다. 이렇게 많은 차들 중에 단 한 대도 산루이스를 가지 않기로 불가능하다. 우리는 산루이스 가는 차로부터 거절당한 게 분명했다. 그것도 “가까운 곳까지만 간다”라는 거짓말로. 지원 형은 우리의 이러한 깨달음을 다음과 같은 멋진 말로 정리했다. “이곳에 산루이스 가는 차는 많이 온다. 그러나 자기 차는 가까운 곳까지만 간다.”

그러던 중, 칠레 승용차 한대가 주유소로 들어왔다. 칠레 차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이 차가 아르헨티나에서 왔는지 브라질에서 왔는지도 알 수 있다. 번호판의 글씨가 검은색이고 바탕이 하얀색이면 칠레 차, 반대로 글씨가 하얀색이고 바탕이 검은색이면 아르헨티나 차다. 브라질 차의 번호판은 컬러풀하다. 글씨는 흰색이고 바탕이 빨간색이다.

각설하고, 차를 주유하는 동안 운전자 노인이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 지원 형이 말을 걸었다. 아니! 저토록 살가운 표정과 말투가 이 아르헨티나 땅에 존재했다니. 노인은, 산루이스까지 가긴 하는데 보다시피 차가 일행으로 꼭 차서 태워줄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미안해하기까지 하며 상냥한 미소를 짓는 칠레인에 대해, 이제까지 우릴 쌀쌀맞게 대하던 아르헨티나인들에 대한 분노가 반전되어 감사와 감동을 느꼈다. 역시, 칠레

인은 달라. 잠깐 잊었지만 칠레인들이란 역시 미소와 친절의 사람들이었다.

오후 네 시(우리는 그래도 오전에 출발했는데!), 마침내 산루이스에 간다고 시인하며 우릴 태워줄 수 있다고 말하는 듯한 카미오네로를(아르헨티나인이었다) 만났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히치하이킹은 끝없는 인내심과 부단한 시도의 연속이다.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으며 우릴 태워주고 말고는 이 통화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치고 나서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러더니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가는데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급박해진 우리가 “산루이스?”라고 묻자, 대충 긍정의 사인을 보낸 듯했다. 그의 분위기가 워낙 심각한데다 계속해서 태워준다고 답하는 듯하니 우리도 미칠 노릇이었다. 이 사람을 놓치면 또 몇 시간이나 이곳에 주저앉아 몇 대의 담배를 축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참동안 심각한 표정으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우리에게 눈짓 한번 주지 않았다. 그렇게 불안한 시간들이 흘렀고 어떤 확답이라도 줄까하고 그를 주시했다. 선불리 우리를 태워주길 할 거냐고 물었다가 기분이 바뀌어서 안 태워준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걸지 못했다.

언제나 그랬지만 우리의 히치하이킹은 운전자가 우리를 태워줄 어떤 당위성도 없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의 순간적인 기분에 달려있었다. 일단 올라타고 나면 그 다음은 우리가 운전자의 우위에 있다. 태우고 나서 후회해도 ‘인간적 도리’라는 녀석 때문

에 목적지 전까지는 내리라고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에잇, 기분이다’라며 오케이하고 나면 그것으로 성공이었다. 각설하고, 조마조마해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가 손짓을 했다. 이리 오라고. 옳다구나, 이제 산루이스까지 가는 거다!

그는 땅딸막한 키와 짧은 목, 굵은 턱과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런 외양은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듯했다. 불친절하고 무뎠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대화를 하면서 짓는 미소가 따듯했다. 그는 목소리가 굵다랗고 말을 할 때 강렬한 눈빛을 쏘았다. 그리고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의 태도로 우릴 대했다. 그의 말이 워낙 빠르고 발음을 알아들을 수 없는데 다(항상 나라를 건널 때마다 그 나라의 스페인어 발음에 익숙해 지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특히 칠레로 넘어갔을 때 페루, 볼리비아와 발음이 너무 차이가 나서 굉장히 당혹스러웠다. 칠레는 에스(s) 발음을 되도록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차를 얻어 탈 때마다 운전자와 대화하는 데 지쳐있어서 일부러 말을 꺼내지는 않았다. 그도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휴게소에서 잠깐 내려 그의 동료로 보이는 사람과 커피와 비스킷을 먹었다. 물론 이것들은 전부 우리의 아르헨티나 카미오네로가 사주었다. 칠레부터 대륙의 남부 사람들은 차를 태워줄 때 먹을 것과 잠자리까지 풀 서비스를 제공했다. 오루로 가는 길에 히치하이킹한 한 멧쟁이 카미오네로는 뒷좌석에 오렌지 자루를 싣고 있었는데 우리가 몇 개 달라고 부탁하거나 흠치기까지 했던 것(죄송합니다)을 생각하면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밤이 내리고 우리는 산루이스를 지나 카미온이 많이 들른다는 주유소(역시나 휴게소가 딸려있는)에 내렸다. 그가 로사리오까지 갈 거면 도시에 내리는 것보다 여기서 내일 아침 차를 잡는 게 더 낫겠냐고 물었고 우리가 그렇다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물론

주유소가 그토록 인적이 드문 곳에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토록 자신 있게 대답했으리라. 막상 내리고보니 휴게소 직원으로부터 도로를 따라 앞뒤로 수십 킬로미터 이내에 숙소 따위는 없다는 얘길 들었다. 우리가 타고 온 카미온은 이미 떠났고, 어떻게든 이곳에서 잠자리를 해결해야 되나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차라리 산루이스에서 내렸다면 숙소는 손쉽게 찾았을 것이고 아마 히치하이킹을 하려했어도 오늘처럼 도시 외곽의 주유소까지 걸어나오는 수고를 했다면(물론 보통 수고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차를 잡을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행에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것은 없다. 내 의지와 이성적 판단은 배낭여행자의 배낭에 들어있는 호화스런 구두처럼 쓸모없는 것이다. 모든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연에 달려 있다. 여행자는 그야말로 숙명론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우연들이 얽히고설켜어 하나의 완전한 여행을 만들어내며 훗날 여행을 돌아보았을 때 그 어떤 결정도 후회할만한 것이 없고 그 어떤 우연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가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나는 우연은 레고의 블록 한 개처럼, 사소해보이지만 한편으로 반드시 제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숙명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남은 돈은 60페소 가량이었지만 어차피 밤을 새서 견지 않으면 숙소를 찾을 수 없다고 하니 잠은 여기서 자야겠고 그렇다면 숙박비 걱정할 것 없이 이 돈으로 배터지게 밥이나 먹자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휴게소의 식당에서 무려 소고기를 얹은 스파게티를 먹었다. 밥도 배불리 먹고 담배도 피웠는데, 식당 아저씨 말이 이곳은 새벽 한 시면 문을 닫는다고 말했다. 그러면, 이 식당에서 밤을 새거나 테이블 위에 엎어져서 자는 것도 불가능하단 말인가요? 그렇다, 그리고 휴게소 안에 당신들이 잘

곳은 없다. 화장실은요? 화장실은 가능하단다.

화장실에 가보니 샤워실에 보일러가 있고 옷을 걸쳐놓거나 신발을 갈아 신을 때 쓸 수 있는 기다란 철제 의자가 마침 두 개 있었다. 밤에도 샤워실 문은 열어놓으며 보일러도 끄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기서 자기로 했다. 그래도 우리는 돈도 없고 불쌍한데 혹시라도 사정을 하면 자기 집에서 재워주거나 휴게소를 개방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식당 아저씨를 조금 더 꼬드겨 보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위해 호의를 베풀 생각이 전혀 없어보였다. 창고에서 잘 수 있는지 물어보아도 창고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노’(No)라고 대답했고 화장실 말고 다른 잠자리는 없다고 물어도 그가 소개해준 곳은 한 시간만 자도 얼어 죽을 것 같은 식당 바깥의 맨땅바닥이었다. 게다가 그곳은 머리 위를 가리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실내를 원했기 때문에 여긴 지붕이 없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그는 식당 바깥의 또 다른 맨땅바닥을 가리켰다. 방금 전의 자리와 다른 점은 있었다. 우리의 항의를 십분 받아들여 차양이 있긴 했다는 점.

이 사람한테 더 무엇을 기대할 수는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샤워실에 침낭을 깔았다. 그런데 아까부터 초소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던 경찰이 들어왔다. 그는 여권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더니 어디서 왔느냐, 뭐하러 왔느냐고 캐물었다. 이 사람에게 잘 보이면 초소에서 재워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최대한 호의적인 표정으로 상냥하게 대답했지만 그는 우리의 신원만 확인하더니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눈길을 보내며 유유히 화장실을 떠나버렸다.

침낭을 깔고 들어가자마자 지원 형은 잠이 들었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소연이에게 빌린 책을 한참동안 읽었다. 내일 로사리

오 행 차를 잡을 수 있다면 아마 오늘이 지원 행과의 마지막 밤이 될 것이었다. 이 역사적인 밤을 이대로 보내기는 아쉬웠으나 그렇다고 딱히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사실 화장실에서 자는 것 이상의 이벤트가 어디 있겠가. 여행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벤트로 손색이 없다. 게다가 지원형의 몸이 많이 좋지 않았다. 아픈 사람을 일어나 있으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나도 어설픈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사람들이 화장실에 들어오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자면서도 한두 번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존재에 흠칫 놀라는 것을 느끼기는 했다. 화장실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웠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마 샤워실에서 자고 있는 우리가 더 무서웠을 것이다. 우리 때문에 샤워를 하려다 포기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자다보면 시간의 흐름을 가늠하기 어려워서 사람들이 아침이 다 되어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인지, 아니면 밤새 꾸준히 들어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아니면 아침 즈음해서 내 의식이 슬슬 깨어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쨌든 사람들이 들어오는 빈도수가 높아지는 듯했고 바깥이 부산스러운 듯도 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은 희미하게 밝아있었고, 우리는 침낭을 개고 짐을 꾸렸다.

남은 돈으로 식당에서 크로와상과 커피로 아침을 먹고 히치하이킹을 시도하러 밖으로 나왔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 처음부터 성공하기는 바라지도 않았다. 우리의 두 번째 사냥감은 칠레 카미온이었다.

우리는 처음에 산타페까지 간다고 말했다. 지도 상, 로사리오 시로 가려면 산타페 주(州)의 산타페 시를 통과해야했기 때문에

로사리오 시로 가는 차보다 그곳으로 가는 차를 잡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했고 일단 그곳에 도착하면 산타페와 로사리오는 매우 가깝기 때문에 우리의 ‘해방군’ 아저씨가 계시는 도시까지 가는 차를 잡기가 여기서보다 훨씬 쉬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산타페까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망해서 돌아서려는데 그는 자기가 로사리오로 간다고 덧붙였다. 그래, 우리가 가려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를 태워준 칠레 카미온 기사

그는 흔쾌히 태워주겠다고 대답했다.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산타페를 거치지 않고 로사리오로 가는 길이 있는 모양이었다.

모래바람이 부는 아침. 운전자 아저씨가 휴게소에서 잠깐 불일을 보는 동안 나는 근처 마을을 산책했다. 어제 보았던 건물들은 마을에서도 휴게소와 가까운 곳에 있는 것들이었다. 황량한 초원 한가운데 미국의 쇠락한 시골 마을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작은 주택들이 넓지도 좁지도 않은 간격을 이루고 모여 있었다. 아직 기상 시간이 아닌 듯, 사람들은 거의 마주치지 못했다. 돌아와서 보기만 해도 든든한 칠레 카미온에 올라탔다.

느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칠레 차는 아르헨티나의 차들보다 깨끗하고 신식이었다. 멘도사에서 본 아르헨티나 차들은 페루와 볼리비아의 차들처럼 낡고 뼈거덕거리지는 않았지만 이곳 사람들이 칠레만큼 잘살지 못한다는 느낌이었다.

각설하고, 이 과묵한 칠레 아저씨는 선글라스를 끼고 흔들림 없는 자세를 유지하며 운전했다. 미소가 멋진 사람.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리며 ‘부에노’(Bueno, 스페인어로 ‘좋다’라는 뜻)라고 외치는 것이 어울리는 미소였다. 얼마 안가서 그는 점심을 먹겠다며 차를 세웠다. 쓰러져가는 집이 있었고 우리는 화장실에 다녀왔다. 몸이 많이 안 좋았다. 목구멍 안쪽이 퉁퉁 부은 것 같았고, 몸은 한계에 다다라 부서지기 직전인 것 같았다.

길 건너편에 있는 휴게소에서 아저씨는 우리더러 알아서 점심을 먹으라고 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는 끝까지 풀서비스를 받을 줄 알았는데 예외가 생긴 셈이었다. 그는 휴게소의 어떤 식당을 가리키며 저기서 식사를 하라고 했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도저히 사먹을 수 없는 메뉴들만 있었다.

종업원에게 물어보니까 가장 싼 메뉴의 일인분 가격이 우리가 가진 돈의 액수와 딱 맞아 떨어졌다. 웬다구나! 우리가 두 사람이긴 하지만 일인분만 먹어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가진 돈을 동전까지 긁어서 내놓자 종업원이 갑자기 가격을 1페소 높여 부르면서 그 일인분도 내놓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까는 17페소라며! 하지만 그녀는 쌀쌀맞게 고개를 가로젓기만 했다. 난 분통이 터져서 마침 들고 있던 음료수의 빈 페트병을 식당 테이블에 거칠게 버리는 나름의 소심한 반항을 시도하고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종업원을 이해 못할 것도 아니다. 왜냐면 그녀는 아르헨티나인이니까.

우리는 매점으로 가서 샌드위치를 사먹었다. 그런데 우리의 카미오네로가 그곳에 앉아 커피와 빵으로 점심을 먹고 있었다. 아마도, 점심을 사줄 생각이 없었다기보다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유롭게 맛있는 것을 사먹으라고 보내준 것 같았다. 한입거리 샌드위치를 오물오

물 씹으면서(따뜻하게 먹고 싶어서 매점 종업원에게 전자레인지에 데워달라고 부탁했다) 로사리오에 가면 이렇게 가난하고 힘겨운 여행도 일단 끝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여행을 떠나기 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할 때까지 세 끼 식사와 잠자리, 그리고 투어(마추픽추나 우유니)에 다섯 명이 다 같이 쓸 돈(이것을 공금이라고 했다)을 책정했다. 그러나 우리는 칠레에서부터 살인적인 물가를 맞닥뜨렸고, 페루나 볼리비아에서처럼 돈을 쓰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출액이 예산을 초과해버릴 것이라는 명명백백한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고 개인들에게 따로 간식을 사먹거나 개별적으로 관광지를 방문할 때 쓰라고 지급한 돈(이것을 개인비라고 했다)을 끌어다 식사나 잠자리를 해결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개인이 팀에 종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였기 때문이다. 칠레에서부터 팀을 쪼개며 다니다보니 공금과 개인비의 구분이 사라질 때도 있었으나 이 구분은 꽤 엄격히 지켜진 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할 때까지 남은 날짜를 계산하여 하루에 얼마나 쓸지 정했고 때로 이 기준을 초과하기도 하고 미달되기도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여행을 해나갔다.

이 공금과 개인비는 한국에서 기업이나 학교에 우리 여행의 기획서를 제출하고 지원받은 돈이었다. 그리고 각각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거나 집에서 벌린 돈(이것을 비상금이라고 했다)은 우리가 계획한 <가난한 여행>을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할 때까지 결코 쓰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팀원들 모두가 낭만과 이상으로 꿈꾸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서도 돈이 없어 아무것도 즐길 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비상금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아르헨티나 횡단 여행을 하면서부터 개인비도 공금도 거의 바

닥나 있었다. 그리고 앞서 60페소 남았다거나 17페소 남았다는 말은, 발파라이소에서 지원 형과 나, 그리고 소연이와 화정이, 결 회 형으로 팀을 나누면서 각각 할당된 공금이 있었고 그것과 우리가 가진 개인비를 포함해서 그만큼 남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상금을 빼면 우리는 완전히 거지였던 것이다. 혹자는 비상금을 쓰면 되지 않겠냐고 말할 수도 있겠다. 쓰면 안 된다는 규칙을 스스로 정해놓고 돈이 있으면서도 거지처럼 사는 것은 스스로에 대해서나, 우리가 진짜로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현지인들한테나 거짓말이고 어디까지나 ‘척’이 아니냐고.

틀린 말은 아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딜레마로 남아있었다. 진짜 가난한 여행을 하려면 정말 돈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야 했다. 그러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하기 전까지 비상금의 존재는 (가끔을 제외하고) 잊고 있었다. 위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완전히 길들여졌기 때문인지 비상금은 실제로 돈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이 시대에 가난한 여행을 경험해보겠다고 떠나는 젊은 여행자들은 모두 ‘척쟁이들’이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여행 중에만 돈이 없으며 집에 돌아가면 다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풍요롭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배가 고파도 돈이 없어 굶어야하거나 공짜로 차를 얻어 타야만 이동할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남미까지 오는 비행기 표를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풍요롭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무튼, 앞에서도 말했듯이, 체력이 바닥나서 몸이 뼈저덕거리는 것을 느꼈고 차에 다시 올라타자마자 뒷자리의 널찍한 침대에 양말을 벗고 누워 잠에 빠져들었다. 여행을 하면서 남의 차에 올라타서 이렇게 오랜 시간 편안히 잠을 자본 적이 없었던 것 같

다. 어찌다 눈이 떠지더라도 다시 돌아누워 잠을 청하며 내리 네 시간을 잤고, 마침내 우리는 로사리오에 도착했다.

이렇게 우리의 여행은 끝이 났다. 물론 로사리오에서 보낼 며칠과 부에노스아이레스 가는 길,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보낼 시간들과 이과수 폭포에 다녀올 일 등 여러 일정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일단 지원 형과 나, 환상적인 조합도 아니었고 운도 나빴지만 그래도 무사히 아르헨티나를 횡단한 팀의 여행이 끝났고, 로사리오와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지척이란 것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우리의 길고 긴 히치하이킹 모험도 이제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우리의 모험을 마무리 지으면서 어떤 풍경에 대해서 언급해야할 것 같다. 뒷자리에 뺏어서 잠들기 전까지 난 조수석에 앉아있었다. 그리고 말로만 듣던 아르헨티나 평원을 보았다. 나를 남미로 이끈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월터 살레스 감독의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였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젊은 에르네스토 게바라가 민중의 현실을 발견하며 혁명가, 체 게바라로 바뀌어가는 과정보다 그들이, 어찌 보면 철없는 모험을 순수한 마음으로 즐기고 있는 모습을 동경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터사이클을 탄 에르네스토 게바라와 알베르토가 번잡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벗어나 아르헨티나의 끝없는 팜파스에 난 베이지 색의 외로운 길을 따라 달리는 장면, 이 장면에 곱치는 음악과, “어머니, 이제 제 처량한 인생과도 같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떠나왔어요”라는 체 게바라의 독백이 내 가슴을 설레게 했다.

그리고 난 이제 젊은 게바라의 처량한 인생과도 같은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간다. 가끔 등장하는 표지판은 부에노스아이레스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표시하고 있었다. 누구에게 지친 일상이었던 곳은 어떤 이에게 꿈이 되고 그리고 서글픈 종착지가

된다.

그러나 일단, 로사리오로 가자. 우리 여행의 끝을 잠시만 미뤄 두도록 하자. 한인들을 만나고 체 게바라의 생가를 보면서, 끝으로만 치달던 우리의 여행에 심표를 두도록 하자. 그리고 그렇게 끝을 준비하도록 하자.□

이동훈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재학. 2008년 6월 안소연(연세대), 이걸희(서울대), 전화정(연세대)과 함께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를 여행했다.
